

데스크 시각

이낙연, 지사와 기자 사이



장 필수 정치부장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째로 접어들었다. 190만 전남도민을 이끄는 '이낙연호'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양새로 순항 중이다.

이낙연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전남을 속속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도지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브랜딩 시책으로 제시한 '가고 싶은 섬'과 '숲속의 전남'은 전남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자원화 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화두가 된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간 상상도 이낙연 지사가 주연이다. 민선 5기 때 소원해진 광주를 먼저 끌어안은 뒤 광주·전남에 피해의식이 강한 전북도를 상상이란 무대로 이끌었다. 송하진 전북지사를 만나서는 자신들의 부인

이 '전여고'이 지사의 부인은 전주여고, 송 지사의 부인은 전남여고 출신이란 인연을 들어 송 지사의 닫힌 마음을 열었다. 인사도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측근을 위한 낙하산 인사도 거의 없고,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서도 별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 일부 공무원들이 '안방마님'에게 줄을 대려고 공관장을 찾는 모습이 눈에 띄지만 씨알도 막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의 관성 탓으로 치부해도 될 듯 싶다.

칭찬보다 질책 많아 경직

취임 초부터 실천하고 있는 '막걸리 소통'에 대한 반응도 괜찮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만 나면 막걸리 잔을 기울이려는 노력에 직원들은 물론 의원과 기자들도 가까이 마음을 열고 있다. 하지만 도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재를 위해 지사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간부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가 봐야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를 내놓는 공무원들의 태도에도 일음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임 박준영 지사 때는 10년 임기의 마지막

에도 보도자료를 낸 해당 실과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도를 부탁하는 열정(?)이 있었다. 이낙연호 향해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사라진 것은 나서봐야 될 듯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 실수를 드러내 꾸중을 들을 바에야 몸을 사리는 게 낫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 지사를 '이 기자'로 부르기도 한다. 현안을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도자료 문구까지 직접 챙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자 출신답게 보도자료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그의 정확한 단어 사용은 흡사 '한 사물을 표현하는 데는 한 단어밖에 없다'는 플라토르의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을 연상시킬 정도다. 직원 다독여 성과 키워야 F1대회의 지속 여부와 관련한 전남도의 원칙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자신의 코멘트가 '재정 최소화'로 나가자 '재정부담 최소화'라고 바로잡아 달라고 한 적도 있다. 그의 단어 사용은 연금술사에 버금간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영암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선 같은 당 전동평 후보를 가

리켜 '이낙연의 마음이 곧 전동평의 마음'이라며 '이심전심'에 빗대어 표현했다. 얼마 전 영암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 군수는 이심전심을 상기시키며 고마움을 표실했다. 이 지사는 요즘 '중대장론'을 강조하고 있다. 도청 중간 간부인 계장과 과장들이 중심이 돼 역할을 해야 도청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의미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계장과 과장들이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대한 불만이 깃들어 있다. 급기야 정부 라인에선 현장에서 지사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해 전달하는 '워딩 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지만 세밀한 차이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전 조 직원이 움직여야 한다. CEO는 디테일보다 큰 틀을 제시하고 조직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기자와 국회의원이란 직업은 단독 플레이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만 도지사는 다르다. 이 지사는 기자와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도청 홍보에 신경 쓰기 전에 F1 정리 문제, 호남 상상발전 방안, 공항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콘텐츠가 먼저다. 조직원들을 다독여 성과를 내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주권국가와 사드(THAAD)문제



최 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

런 중립 외교를 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대(事大)와 명분(名分)이 아닌, 국가 이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광해군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다. 요즘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한국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전통적인 우방이자 군사·정치적으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논리지만 진짜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과거처럼 전혀 고민할 주제가 아니다. 그냥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이 견제의 대상으로 삼는 중국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 우방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지난 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무역흑자는 550억여 달러였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거둔 전체 무역흑자가 470억여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 무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병자호란 때 척화론자 윤집은 청나라와 의 화의를 반대하면서 "차리리 나라가 없

어질지라도 (명나라와의)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보수 세력 대부분은 열렬한 친미주의자들이다. 그들의 미국 떠받들기는 조선시대 대신들의 명나라 떠받들기에 못지않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보수세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우방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거부하라고 한다. 중국의 이런 요구를 전면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무엇보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도자가 바닥을 헤매는 박근혜 정권의 처지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경쟁자는 독일과 일본에 소련과 중공(중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주저하지 않고 어제의 적국인 서독 및 일본과 손을 잡았고, 그 덕분에 서독과 일본은 단시일 내에 경제 강국으로 재 부상했다. 국가 간의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의 우방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의 우방으로 남을 수 있을지 가능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팽창일로에 있는 인접 강대국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그렇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국경을 접한 중국은 우리가 가까이 지나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크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결국 국가의 이익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반미도, 친미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친중이나 반중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가 정권적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속성이 어땠든 간에 이 문제는 한 정권의 안위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해답은 친미도, 반미도, 친중도 아닌 순전히 주권국가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400여 년 전 광해군도 그렇게 했는지 지금의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사드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는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것이 답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봄아, 봄아



고 성희 시인

리기도 했다. 이어 마당귀 동백의 봄은 염통이 떨리는 듯 커튼을 찢었다. 겨우내 고 통으로 빛은 사랑이 핏빛으로 물들어있고 작은 꽃이파리는 순결로 넘쳤다. 산수유가 몽글게 머물더니 제각기 작은 해가 되어 노란 꽃물을 사방으로 뿌렸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이겨낸 매실나무는 빼죽이던 멍울을 드디어 타뜨려 흰 꽃을 천지간에 드러냈다. 며칠 꾀꾀 같은 구름이 산자락을 덮더니 비가 내렸다. 메밀과 보풀처럼 엷드러있던 마당의 잔디에 푸른 싹이 올랐다. 돌 틈의 찰흙에도 꿈틀꿈틀 꽃을 향한 희망이 연녹색의 알갱이로 맺혀있고, 일고 녹기를 반복하며 푸석이던 마당도 기운을 차리고 제법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사위가 봄을 향한 열기로 가득하다. 무수히 오고 갔던 봄. 그러나 지금까지 내 안에 병풍처럼 펼쳐지는 이런 봄의 설렘을 알지 못했다. 자연의 변모를 마주 한 환골탈태 같은 자연의 변모를 마치 숲 한 잔 마시고 입을 씩대내듯 넘겨버렸다. 돌이켜보니 그런 과거가 진심으로 아쉽다. 봄은 늘 오되 매년 다르다는 누군가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삶의 변곡점을 지난 이제야 눈을 뜨더니 어이리서음을 어찌 하리.

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오래 묵혀두었던 꿈, 공부다. 내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이다. 지금까지의 삶과 완벽하게 결별하고 장삼이사의 학생이 되어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마치 이 불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 알지 못하는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 공부를 하는 방법도 크게 달라져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 답답하다. 사람들은 또 어땠가. 나이와 성별의 차이만큼 직업과 경력의 차가 많다. 처음 만났던 시간들의 어색함이 떠오른다.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하고 불안한 어린애 마냥 눈을 굴렸던 날. 그럼에도 한번 부딪히보기도 걱정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서면 강물뿐인 배수진을 치고 내 몸의 관행을 깨 부렸다.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아이칸 엔터프라이시스 창업주이자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은 "자신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정말 자신만 생각하며 세상의 트렌드를 거들떠보지 않고 원칙을 고수한다면 마침내 '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다. 시간과 책, 자료를 찾는 방법, 효과적인 공부하기의 방안,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 화요일이면 배우는 목공예는 아마 목은 내 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복원시켜 줄 것이다. 톱질과 대패질도 날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듯 세상의 이치도 계단을 밟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아직 심정적으로 익숙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를 보듯 규칙적으로 내 몸을 굴릴 것이다. 그러면 내게도 봄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봄이 왔다고 한다. 산 갈기마다 아직 절망이 엮드려 있는데. 등성을 타고 오르려는 희망은 아직 모호한데. 숲 그들은 안으로만 잠겨 있고, 경계를 가르는 시냇물 또한 언 몸으로 새벽을 뒤척이고 있는데. 긴 그리움에 싸여 치마 갈 풍경(風聲) 여직 떨고 있는데. 봄이 왔다고 수련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도회지의 어둠을 서성이고, 당신의 등불은 켜질 줄 모르건만, 새벽이 눈물처럼 왔다고 한다. 지난 세월의 월야독작(月夜獨作), 달빛 체념으로 배어 낸 그 자리에서 다시 노란 봄이 꾸역꾸역, 봄은 늘 오는 것이고, 오는 봄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이나 이 봄에 나는 다시 내 봄을 붙잡고 일어설려 하고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kwangju.co.kr

社說

맞춤형 복지 성공,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올 하반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가 도입되면서 광주·전남 기초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만 6000여 명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추진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의 핵심은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수급자 등으로 세분화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차상위계층까지 복지 혜택이 넓어진다 는 이야기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광주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만1975명이 증가한 20만8524명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남도 지난해 7만6000여 명에서 2만4000여 명이 늘어난 10만여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속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작 가장 큰 문제가 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고는 하나 아직 살아있고, 추정 소득제도의 개선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일선 복지현장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맞춤형 복지급여는 구두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광주·전남도 등 복지당국이 할 일은 자명하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복지사각에 놓인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무원의 눈높이가 아닌 복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대처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복지 요원들의 재교육 또한 서둘러야 한다. 시행까지 3개월여, 준비를 위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휴탕' 수돗물에 신음하는 혁신도시 주민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수도관에서 또 다시 휴탕물이 쏟아져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혁신도시 LH아파트 4개 단지에서 부연 수돗물이 나와 '먹는 물 부적합 경보' 발령 이후 23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내 3100여 가구와 인근 학교 등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생수에 의존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제는 탁도가 높은 수돗물이 왜 나오고, 공급 과정에 결함은 없는지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수돗물 검사 결과, 탁도가 수질 기준치(0.5NTU) 보다 4배나 초과하는 2.7NTU로 나타난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혁신도시 내 수돗물을 공급 중인 수자원공사와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의 대응과 대책도 극히 허술하다. 공급하는 '원수(原水)에는 문제가 없고, 설 연휴가 끝난 지난 달 2일부터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면서 유속이 빨라져 상수도관 내부의 일부 오염된 정제수가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휴탕물마저 쏟아진 상황에 지금까지 내놓은 진단은 사실상 변명이나 다를 바 없다. 이번 휴탕물 사태는 혁신도시 시행사인 LH(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 내 주민들은 의료, 치안, 교육, 대형유통단지 등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특히 광주·나주를 오가는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채널이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주민 복지라 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휴탕물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깨끗한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15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강요해선 안 될 것이다.

無等鼓

항해중이던 유람선이 침몰하는 내용을 그리거나 무인도 생활을 하다가 구조되는 얘기 등 바다나 선원을 소재로 한 소설은 많다. 온 국민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벌써 1년을 맞는다. 현재 세월호를 버리고 달아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거의 즉주로 진행되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재판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다. 조셉 콘래드의 소설 '로드 짐(Lord Jim)'은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원들에 대한 얘기와 재판을 다뤘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났지 앉잖아 거짓말 거짓말...' 세월호 참사와 묘하게 일치한 구절이 부른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의 가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일부 선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퇴선명령을 내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참사 1주기에 앞서 진실한 고백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희송 사회탐장 chae@

도주한 선원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